

대만의 해외직접투자의 유입과 유출 특징 비교

김상욱*, 김옥희**

요약

본 논문은 대만의 해외직접투자 유입과 유출 구조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만경제부투자심의회 자료의 자료를 이용한다. 대만의 해외직접투자 유입은 1950년대부터 시작되고 있으나 1981년-2000년 시기에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80년대에는 화교자본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는 외국인자본의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대만이 유입하는 해외직접투자는 주로 카리브해 영국령 지역, 미국, 네덜란드, 일본, 홍콩, 싱가포르, 영국 등에서 투자되고 있다. 대만으로 유입되는 해외직접투자는 제조업에 가장 많이 집중되고 있으며 금융·보험업, 도·소매업의 비중도 높다. 대만의 해외직접투자 유출도 199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인한 투자환경의 개선은 대만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에 적극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과 카리브해 영국령 지역이 대만의 해외직접투자 집중지역이다. 대만의 해외직접투자 유출 업종은 제조업보다는 금융·보험업을 위주로 하는 서비스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대만의 중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제조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Comparison of Inward FDI and Outward FDI' Characteristics in Taiwan

Sang-Wook KIM*, Yu-Ji JIN**

ABSTRACT

This paper compare the inward FDI and outward FDI structure in China, Taiwan by period. Taiwan is the important factor in Asian economy, also is the important FDI inward region and FDI outward region. This paper use the ICMOE data. The FDI inward in Taiwan started from 1950s, the big scale FDI inward started from 1981-2000 period. The Overseas Chinese investment play important role in 1980s, after 1980s, the foreign investment play more important role in FDI inward. The most inward FDI come from British Overseas Territories in the Caribbean, United States of America, Netherlands, Japan, Hongkong(China), Singapore and United Kingdom. The inward FDI mainly concentrated in the manufacturing, and more invested in the financial and insurance, wholesale and retail trade. The outward FDI more increased from 1990s in China, Taiwan. In particular, the investment environment improvement of China affect positively the outward FDI of China, Taiwan. Excepting the China, the outward FDI concentrate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British Overseas Territories in the Caribbean. The outward FDI more concentrated in the financial and insurance and the service industry, except the manufacturing. And outward FDI to China absolutely concentrated in the manufacturing.

Key Words : Taiwan, China, Region, FDI, Manufacturing

* 배재대학교 중국학부 중국통상학 (✉ jinxiangyu@pcu.ac.kr)

** 배재대학교 대학원 동아시아학과

· 제1저자(First Author) : 김상욱 · 제2저자(Second Author) : 김옥희(金玉姬)

· 접수일(2013년 2월 4일), 수정일(1차 : 2013년 3월 19일), 게재확정일(2013년 3월 26일)

I. 서 론

경제의 세계화(globalization)는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를 더욱 촉진시키고 있다. 해외직접투자는 국가경계를 넘어서는 자본투자로서 투자국가와 투자대상국가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Balasubramanyam, V. N., M. Salisu, D.Sapsford, 1996; Basu, P., A. Guariglia, 2007; Alfaro, L., A. Chanda, S. Kalemli-Ozean, S. Sayek, 2010). 20세기 후반 중국 경제가 개방되기 전 대만은 아시아의 경제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투자대상지역이었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에는 대만은 외국투자자본과 화교(Overseas Chinese)의 중국 진출에 있어서도 중간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Ki-Chul, Park, 2001). 따라서 대만의 해외직접투자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아시아의 해외직접투자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대만의 해외직접투자를 유입이나 유출 한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만의 해외직접투자를 유입과 유출이라는 두 가지 채널에서 구조적 특징을 분석한다. 또한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에 있어서는 화교자본을 구분하여 분석하고 해외직접투자의 유출에 있어서는 중국에 대한 투자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대만의 해외직접투자의 유출입 구조의 비교는 향후 화교자본의 연구와 동아시아의 해외직접투자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II. 자료

해외직접투자는 국경을 넘어서는 투자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투자본국에서의 통계와 투자대상국가에서의 통계자료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Sang-Wook, Kim, 2012). 본 논문은 대만의 해외직접투자 유입과 유출 구조와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경제부투자심의위원회(經濟部投資審議委員會, ICMOEA)의 통계자료를 이용한다. 경제부투자심의위원회의 통계자료는 매년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연도별 추세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통계자료를 투자비준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기준과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 문제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도 투자비준금액과 실제투자금액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대만의 경제부투자심의위원회의 자료는 투자비준금액만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에 어느 정도의 한계는 가지고 있다.

<그림 1>은 대만 경제부투자심의위원회(ICMOEA)의 통계자료와 UNCTAD의 통계자료를 1970년부터 2010년까지 비교하고 있다. ICMOEA의 자료는 연도별 투자비준금액이며, UNCTAD 자료 역시 대만에 대한 연도별 Inward FDI flow 자료이다. 이 두 자료를 비교해 보면 1970년대는 큰 차이가 없지만 1980년대부터 점차적으로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1998년에는 ICMOEA의 자료에 의하면 전년 대비 증가 추세이지만 UNCTAD 자료에 의하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는 아시아금융위기로 인해 대만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였지만 포기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도별 추세를 볼 때 1998년과 같이 특정 연도의 글로벌 경기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도 2000년대 이후에는 ICMOEA의 자료가 UNCTAD보다도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대만에 대한 투자계획과 실제투자의 차이에 의한 것이다.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글로벌경기의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계획의 변경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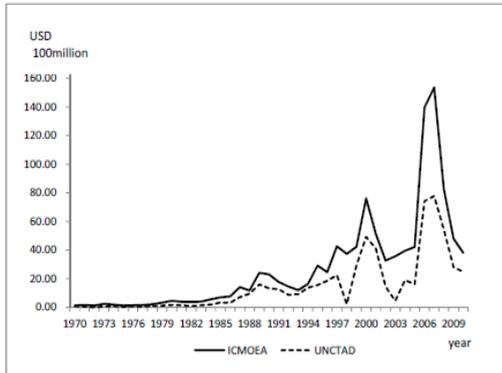


그림 1. 대만의 FDI 유입 통계 비교
Fig 1. Comparison of Inward FDI Statistics in China, Taiwan Province

그러나 대만의 해외직접투자 유출 통계는 ICMOEA의 자료보다 UNCTAD의 자료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즉 대만에서 비준한 해외직접투자 금액보다 실제 다른 국가에 유입된 금액이 더욱 크다는 것이다. 이는 대만경제부에 비준을 받지 않은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00년대 이후부터는 이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우리가 주의할 점은 해외직접투자의 통계자료가 가지는 한계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이해가 필요하다.

III. 대만의 해외직접투자 유입 구조

3.1 대만의 해외직접투자 유입 추세

대만의 해외직접투자 유입 구조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크게 유입 추세, 유입 국가 구조, 그리고 유입 업종 구조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 대만의 해외직접투자 유입은 1950년부터 시작되고 있다. 이 시기에는 화교(華僑, Overseas Chinese)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투자가 대만의 해외직접투자 유입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당시 중국은 계획경제

시기였고 대만경제의 급속한 성장은 화교자본 유입의 중요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Ki-Chul, Park, 2001).

1980년대부터 대만의 해외직접투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대만경제에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1990년대 초반 중국의 개혁개방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대만지역에 대한 투자는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이는 대만기업의 중국투자자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만기업이 중국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외국인기업이 대만에 대한 투자를 재검토하기 때문이다. 중국에 직접적으로 진입하기 보다는 대만에 투자를 하고 대만을 경유하여 다시 중국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확실성으로부터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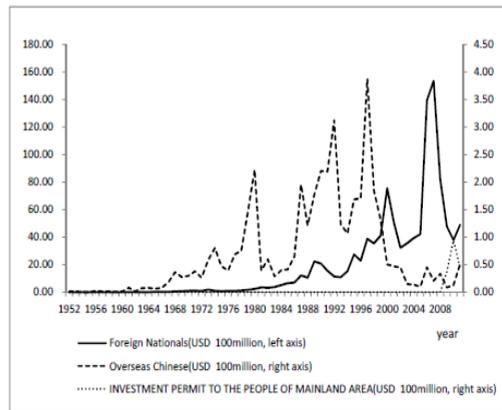


그림 2. 대만의 FDI 유입 추세
Fig 2. Trend of Inward FDI in China, Taiwan Province

1990년대 말 아시아경제위기 때 대만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약간 감소하고 있다. 이는 투자비준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비준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1998년에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UNCTAD의 자료에 의하면 1998년의 유입규모는 1997년과 비교해서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 문제는 앞에서 제기한 투자통계자료의 차이 때문이다. 그러나 <그림 2>는 전반적인 추세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이 문제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

2000년대의 추세를 보면 연도별로 변동은 있지만 여전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0년대는 중국의 WTO가입이 결정되고 베이징 올림픽 등 대외적인 투자환경이 개선되면서 대만의 투자환경에도 적극적인 영향들을 초래하고 있다. 2007년에 대만의 해외 직접투자가 급증하게 되는데 이는 금융계의 대형투자에 기인하고 있다. 2008년과 2009년에는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인해 대만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도 약간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대만과 중국의 ECFA(兩岸經濟合作架構協議,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ECFA)체결에 따른 투자환경의 개선으로 대만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림 2>에 의하면 2000년대 이후 화교자본의 대만에 대한 투자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외국인 자본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2009년부터는 중국의 대만에 대한 투자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화교자본이 대만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중국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3.2 대만의 해외직접투자 유입 국가 구조

대만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국가별 지역별 구조의 특징은 집중도가 높은 것이다. 1952년 2011년 기간 동안 대만의 해외직접투자의 약 70%는 상위 7개 국가나 지역으로부터 유입되고 있다. 그 중 카리브해 영국령지역(British Overseas Territories in the Caribbean)은 조세회피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가 이 지역을 경유하여 대만으로 투자된다. 카리브해 영국령지역의 대만에 대한 투자는 1952년-2011년 기간 전체 투자비준금액의 14.12%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제외하고도 상위 6개 국가의 대만에 대한 투자집중도는 55%에 달하고 있다. 카리브해 영국령지역을 제외하고 대만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이다. 미국의 대만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195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고 있다. 대만은 미국과의 특수한 정치적 관계를 바탕으로 화교네트워크를 이용한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었다. 1952년-1980년 기간 동안 대만이 유입한 해외직접투자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5%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비중은 1980년대 이후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16.23%까지 감소하고 있다. 왜냐하면 많은 미국기업들이 대만이 아닌 중국으로 투자지역을 이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1. 대만에 대한 FDI 유입 투자국가 비중(%)
Table 1. Inward FDI Structure in China, Taiwan Province by Nations and Regions(%)

nations and region	1952-1980	1981-2000	2001-2011	1952-2011
Asia	48.95	40.03	23.28	24.67
Japan	18.36	20.81	10.75	12.00
South Korea	0.14	0.30	1.15	0.68
China, Hongkong	12.52	7.67	2.94	4.02
China	0.00	0.00	0.25	0.12
Singapore	8.82	8.00	4.67	4.92
Indonesia	0.25	0.14	0.06	0.08
Malaysia	2.53	0.53	2.79	1.62
Philippines	5.57	2.35	0.07	0.84
Thailand	0.34	0.12	0.04	0.06
Vietnam	0.12	0.00	0.07	0.04
India	0.00	0.03	0.05	0.04
Others	0.28	0.09	0.43	0.25
North America	36.73	24.24	16.33	16.21
Canada	1.75	0.82	0.10	0.33
United States of America	34.98	23.42	16.23	15.88
Europe	10.17	12.18	34.80	21.48
United Kingdom	0.40	4.22	7.05	4.84
France	0.03	0.50	0.76	0.54
Germany	1.49	1.55	1.63	1.32
Netherlands	4.37	3.60	23.98	13.33
Czech	0.00	0.00	0.00	0.00
Others	3.88	2.29	1.37	1.45
Middle-South America	3.36	19.02	21.47	16.62
Bermuda	1.93	2.69	1.24	1.47
British Overseas Territories in the Caribbean	0.00	14.51	19.32	14.12
Panama	1.14	1.41	0.34	0.61
Brazil	0.03	0.02	0.02	0.02
Others	0.26	0.39	0.57	0.41
Oceania	0.09	2.52	3.52	2.53
Australia	0.09	2.15	0.21	0.75

New Zealand	0.00	0.07	0.11	0.07
Samoa	0.00	0.10	3.15	1.63
Others	0.00	0.20	0.05	0.08
Africa	0.70	2.01	0.60	0.92
Total	100.0	100.0	100.0	100.0

자료: 대만경제부투자심의위원회(ICMOEA)

미국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네덜란드(Netherlands)이다. 네덜란드는 1952년-2011 기간 동안 대만이 유입한 해외직접투자금액의 13.33%를 차지하고 있다. 시기별로 보면 2000년대 이전 네덜란드의 비중은 매우 낮았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약 24%까지 비중이 상승하였다. 이는 ABN암로와 ING와 같은 금융기관의 투자에 기인한다.

대만의 해외직접투자 유입에서 일본(Japan)의 비중도 상당히 높다. 일본의 투자는 195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고 있으며 1952년-1980년 기간 동안에는 전체 투자 유입금액의 18.3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1981년-2000년 기간에는 미국의 비중이 감소한 것과 대조적으로 일본의 비중은 20.81%로 증가하였다. 즉 대만의 해외직접투자 이용에서 일본의 역할이 더욱 증대한 것이다. 이 시기에 일본의 제조업은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노동력과 시장조건이 적합한 대만으로 투자가 많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는 전체 투자금액에서 일본의 비중이 10%대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일본의 해외직접투자가 중국으로 많이 이전되었으며 대만의 해외직접투자 유입에서 네덜란드 등 다른 국가의 비중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홍콩(China, Hongkong)과 싱가포르(Singapore)도 대만에 대한 투자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은 화교자본과 밀접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만에 대한 투자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1980년대 이전 홍콩과 싱가포르의 비중은 각각 12.54%와 8.82%를 차지하고 있으나 2001년-2011년 기간에는 각각 2.94%와 4.67%로 감소하였다. 이 역시 홍콩과 싱가포르의 중국에 대한

투자가 증대한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본다.

표 2. 대만에 대한 FDI 유입 투자지역 시기별 비중 (%)
Table 2. Inward FDI Structure in China, Taiwan Province by Regions and Periods(%)

Regions	1952-1980	1981-2000	2001-2011	1952-2011
Asia	3.87	48.23	47.90	100.00
North America	4.42	44.44	51.14	100.00
Europe	0.92	16.85	82.22	100.00
Middle-South America	0.39	34.02	65.59	100.00
Oceania	0.07	29.53	70.40	100.00
Africa	1.50	65.27	33.23	100.00

자료: 대만경제부투자심의위원회(ICMOEA)

대만이 유입한 해외직접투자의 국가별 지역별 비중을 시기별로 다시 구분해 보면 대부분의 투자는 2001년-2011년 기간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대만으로의 해외직접투자는 1981년-2000년 기간과 2001년-2011년 기간이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아시아지역의 국가들이 대만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북아메리카지역, 유럽지역, 중남아메리카지역의 대만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2001년-2011년 기간에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는 투자업종이 다양화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또한 ECFA 등으로 대만과 중국의 경제협력관계가 더욱 밀접해지면서 대만의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3.3 해외직접투자 유입 업종 구조

20세기 중반 신흥공업국 중의 하나인 대만은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하는 탄탄한 제조업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조업의 경쟁력은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에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투자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1980년대 이전 시기에는 전체 유입된 투자의 80% 정도가 제조업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부터는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 이후에는 40% 대로 줄어들었다.

표 3. 대만의 해외직접투자 유입 업종 구조(%)
Table 3. Industry Structure of the Inward FDI in China, Taiwan Province(%)

type of industry	1952-1980	1981-2000	2001-2011	1952-2011
Manufacturing	78.70	50.51	41.11	45.39
Food Manufacturing	2.13	2.58	0.64	1.38
Textiles Mills	3.29	1.26	0.23	0.68
Leather, Fur and Related Products Manufacturing	1.76	0.49	0.12	0.30
Chemical Material Manufacturing	12.09	6.97	1.53	3.74
Rubber Products Manufacturing	2.44	1.03	0.07	0.47
Plastic Products Manufacturing	0.00	0.36	0.56	0.47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Manufacturing	12.10	1.06	4.23	3.27
Fabricated Metal Products Manufacturing	6.43	4.71	2.10	3.14
Electronic Parts and Components Manufacturing	0.00	7.06	19.18	14.35
Computers, Electronic and Optical Products Manufacturing	0.00	6.41	5.14	5.48
Electrical Equipment Manufacturing	30.99	10.00	1.12	5.03
Machinery and Equipment Manufacturing	5.99	3.78	0.91	2.07
Construction	3.68	1.11	1.38	1.34
Wholesale and Retail Trade	0.00	9.24	9.88	9.41
Transportation and Storage	1.71	2.29	0.65	1.26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s	0.30	3.67	0.50	1.64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0.00	8.87	2.62	4.82
Financial and Insurance	3.68	15.85	35.17	27.44
Real Estate	0.00	0.33	1.77	1.21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9.38	5.49	3.73	4.50

자료: 대만경제부투자심의위원회(ICMOEA)

1952년-2011년 기간을 볼 때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전체 투자비준금액의 45.39%를 차지하고 있으며, 50% 이상은 서비스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대만으로 유입되는 외국인투자가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업종에 집중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서비스업에서도 금융과 보험업의 비중이 전체 투자의 27.44%를 차지하고 있다.

시기별로 보면 2001년-2011년 기간에 금융과 보험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중국의 개혁개방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본다. 홍콩과 마카오가 중국에 반환되면서 그리고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폭이 확대되면서 대만이 중국을 겨냥한 금융과 보험업 투자의 최적지역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중국

국내의 금융기관 역시 대만을 이용한 금융의 국제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80년대 이전에는 식품제조업, 섬유업, 화학제품제조업, 비철금속제품제조업 등에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으나, 1980년대 이후에는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전자산업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다. 2001년-2011년 기간 동안 25.44%의 투자가 전자산업에 집중하고 있다.

전자산업도 시기별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대만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초기(1952년-1980년) 시기에는 전기설비제조업(Electrical Equipment Manufacturing)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1980년대 이후부터는 전자부품제조업(Electronic Parts and Components Manufacturing)과 컴퓨터, 전자제품, 광학제품제조업(Computers, Electronic and Optical Products Manufacturing)에 대한 투자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01년-2011년 기간 동안 전자부품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전체 투자비준금액의 19.18%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기설비제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1.12%에 지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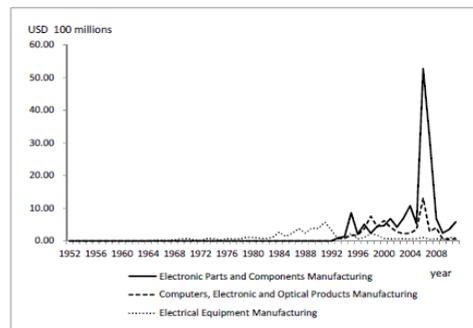


그림 3. 대만의 전자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추세
Fig 3. Trend of Inward FDI to the Electronics Industry in China, Taiwan Province

대만으로 유입되는 해외직접투자는 투자초기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그 중에서도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업종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

후부터는 점차적으로 투자영역이 다양화되고 고부가 가치 업종으로 확대되고 있다. 제조업 내부에서도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전자산업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비중도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3.4 대만에 대한 화교투자 추세

화교는 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을 말한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수많은 중국인은 중국을 떠나 외국으로 이주하였으며 이들은 막강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화교자본을 형성하였다. 이들 화교자본은 아시아 지역 특히 대만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52년-2011년 기간 동안 대만에 투자한 화교자본은 약 41억 달러 정도이다. 그 중 23.52%는 1952년-1980년 기간에 투자되었으며, 69.09%는 1981년-2000년 기간에 7.39%는 2001년-2011년 기간에 투자되었다. 즉 1981년-2000년 기간에 가장 많은 화교자본이 대만에 투자되었다. 이 시기는 중국의 개혁개방 시기와도 일치한다. 특히 중국이 대외적으로 개혁개방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1990년대는 대만에 대한 화교자본의 투자가 더욱 증가하였다. 1990년-2000년 기간 동안의 투자규모가 전체 투자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대만에 대한 화교자본의 투자를 국가와 지역별로 보면 1952년 2011년 기간 동안 필리핀(Philippines)으로부터의 투자가 27.57%로 가장 많다. 그 다음은 홍콩(China, Hongkong)과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순서로 각각 25.73%와 20.9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싱가포르(Singapore), 일본(Japan), 말레이시아(Malaysia)도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6개 국가와 지역의 비중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시기별로 보면 1952년-1980년 기간 동안에는 홍콩과 싱가포르로부터의 투자가 전체의 51.20%를 차지하고 있다. 1981년-2000년 기간에는 필리핀의 비중이 33.92%로 급상승하면서 홍콩과 필리핀의 비중이 60.92%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2011년 기간에는 홍콩의 비중은 12.09%로 크게 감소하고 미국의 비중이 56.60%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1980년대 이전의 투자를 주도한 싱가포르의 비중과 2000년대 이전의 투자를 주도한 필리핀의 비중도 크게 감소하였다. 시기별 변화 추이를 종합해 보면 대만에 대한 화교자본의 투자는 아시아 중심으로부터 미국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 4. 대만에 대한 화교의 투자 추세(%)

Table 4. Trends of the Overseas Chinese Inward FDI In Taiwan, China by Nations and Region(%)

type of industry	1952-1980	1981-2000	2001-2011	1952-2011
Japan	4.84	4.73	4.45	4.73
China, Hongkong	26.27	27.00	12.09	25.73
Singapore	24.93	6.53	0.20	10.39
Malaysia	7.15	3.16	0.70	3.92
Philippines	15.00	33.92	8.21	27.57
United States of America	18.11	18.12	56.60	20.97
sub-total	96.30	93.46	82.25	93.31
Others	3.70	6.54	17.75	6.69

자료: 대만경제부투자심의회(ICMOEA)

IV. 대만의 해외직접투자 유출 구조

4.1 대만의 해외직접투자 유출 추세

대만의 해외직접투자 유출 구조의 특징도 유입 구조와 마찬가지로 유출 추세, 유출 국가 구조, 그리고 유출 업종 구조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 대만의 다른 국가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되고 있지만 규모면에서는 1980년대 말부터 본격적인 유출이 시작되고 있다. 1987년은 해외직접투자 금액이 최초로 1억 달러를 초과하였으며, 1988년에는 해외직접투자 건수가 100건을 넘어섰다. 해외직접투

자 건수가 가장 많은 연도는 1993년과 1997년으로 매년 각각 약 9천 여 건의 해외직접투자가 비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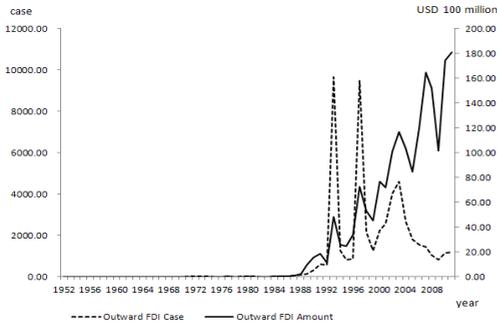


그림 4. 대만의 해외직접투자 유출 추세
Fig 4. Trend of Outward FDI to the World by China, Taiwan Province

시기별로 보면 1952년-1980년 기간에는 해외직접투자 건수가 152건으로 투자금액은 1억 달러 정도에 머물렀다. 1981년-1990년 기간에는 해외직접투자가 약간 상승하고 있지만 투자금액은 전체의 4.29%에 그치고 있다. 본격적인 해외직접투자는 1991-2000년 기간부터 시작되고 있으며, 이 기간의 투자건수와 투자금액은 각각 55.77%와 23.03%를 차지하고 있다. 2001년-2011년 기간에는 투자건수는 44.23%로 약간 감소하였으나 투자금액은 76.97%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투자규모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4.2 대만의 해외직접투자 유출 국가 구조

대만의 해외직접투자 유출 국가의 구조를 보면 아시아지역에 대한 투자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52년-2011년 기간 동안 아시아지역에 대한 투자건수와 투자금액은 각각 전체의 82.85%와 73.66%를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미국에 대한 투자가 각각 9.65%와 7.18%를 차지하며 세 번째는 중남미 지역에 대한 투자가 각각 4.72%와 16.08%를 차지하고 있다.

표 5. 대만의 FDI 투자지역 시기별 비중 (%)
Table 5. Outward FDI Structure in China, Taiwan Province by Regions and Periods(%)

Nations & Regions	1952-1980	1981-2000	2001-2011	1952-2011
Total	100.00	100.00	100.00	100.00
by Investment Case				
Asia	70.39	84.90	80.28	82.85
China	0.00	77.51	72.37	75.05
Japan	3.95	0.77	1.33	1.02
South Korea	0.66	0.22	0.40	0.30
China, Hongkong	5.26	1.93	2.65	2.26
United States of America	15.13	9.46	9.86	9.65
Europe	2.63	1.22	1.36	1.29
Middle-South America	5.26	3.87	5.82	4.72
Oceania	4.61	0.30	1.84	0.99
Africa	1.97	0.12	0.65	0.36
by Investment Amount				
Asia	45.32	56.58	79.16	73.66
China	0.00	38.91	69.08	61.72
Japan	0.95	1.40	0.70	0.87
South Korea	0.35	0.43	0.25	0.29
China, Hongkong	3.78	2.54	1.96	2.11
United States of America	43.10	12.25	5.53	7.18
Europe	1.12	2.17	1.35	1.55
Middle-South America	4.62	27.64	12.38	16.08
Oceania	5.30	0.69	1.14	1.03
Africa	0.43	0.46	0.23	0.28

자료: 대만경제부투자심의위원회(ICMOEA)

아시아지역 중에서도 중국의 비중이 가장 크다. 1952년-2011년 기간 동안 대만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는 투자건수와 투자금액의 75.05%와 61.72%를 차지하고 있다. 투자건수보다 투자금액의 비중이 낮은 이유는 중국에 대한 투자건수 당 투자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투자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1991년-2000년 기간 동안 대만의 중국에 대한 투자건수는 22,974건으로 가장 많으며 동 기간 전체 해외직접투자 건수의 77.51%를 차지하고 있다.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2001년-2011년 기간 동안 대만의 중국에 대한 투자금액은 946억 달러로 가장 많으며 동 기간 전체 해외직접투자 금액의 69.08%를 차지하고 있다. 1991년-2000년 기간 동안 대만의 중국에 대한 투자금액이 171.02억 달러이다. 따라서 2000년대 이후 대만의 중국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만의 아시아지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또 하나의 특징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에 대한 투자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홍콩, 일본, 한국, 베트남, 인도 등에 대한 투자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에는 화교기업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대만의 해외직접투자에도 적극적인 영향을 초래한다고 본다. 그 중 싱가포르에 대한 투자는 2000년대 이후 투자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투자금액은 오히려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에 대해서는 1981년-2000년 기간과 비교해서 2001년-2011년 기간에는 투자건수와 투자금액 모두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홍콩과 일본에 대한 투자는 2000년대 이후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일본에 대한 투자건수는 1981년-2000년 기간에는 228건이며 2001년-2011년 기간에는 304건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홍콩에 대한 투자건수도 573건에서 608건으로 증가하였다. 대만의 일본에 대한 투자금액도 6.14억 달러에서 9.62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홍콩에 대한 투자는 11.18억 달러에서 26.9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대만의 아시아지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에서 세 번째 중요한 추세는 베트남에 대한 투자이다. 대만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전체 투자건수의 0.81%와 투자금액의 1.92%를 차지하고 있다. 비중은 크지 않지만 2000년대 이후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은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대만과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대만의 아메리카대륙에 대한 투자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는 미국에 대한 투자집중이다. 미국에 대한 투자는 대만의 해외직접투자 건수의 9.65%와 투자금액의 7.18%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투자는 1981년-2000년 기간 보다 2001년-2011년 기간에 절대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는 카리브해 영국령 지역에 대한 투자집중이다. 카리브해 영국령 지역에 대한 투자는 전체 투자건수의 3.93%와 투자금액의 13.19%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투자금액의 비중이 약간 감소하고는 있지만 절대금액은 오히려 150억 달러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카리브해 영국령 지역은 조세회피지역이기 때문에 대만 이외의 다른 국가의 글로벌기업들도 많이 경유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대만의 해외직접투자는 주로 중국과 홍콩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며 아메리카지역에서는 미국과 카리브해 영국령 지역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4.3 해외직접투자 유출 업종 구조

대만의 해외직접투자는 1980년대 이전에는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다. 전체 투자건수의 69.74%와 투자금액의 78.05%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투자건수와 투자금액의 규모가 크지 않다. 대만의 해외직접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981년-2000년 기간에는 제조업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금융과 보험업을 중심으로 하는 3차 산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1981년-2000년 기간 제조업에 대한 투자건수 비중은 53.89%이고 투자금액 비중은 42.98%이다. 그러나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의 투자건수 비중은 14.40%, 10.55%, 13.86%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2001년-2011년 기간에는 비중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1952년-2011년 기간을 전체로 볼 때 투자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제조업과 비제조업이 절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서비스업의 비중이 약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 중에서는 1980년대 이전에는 식품제조업, 섬유업, 목재·대나무제품제조업 등과 같은 업종들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었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전

자부품제조업과 컴퓨터, 전자제품, 광학제품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는 유입투자구조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투자유입 초기에는 주로 저부가가치 업종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업종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듯이 외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도 비슷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199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아시아금융위기가 시작되는 무렵인 1997년부터는 매년 투자건수가 100건을 넘어서고 있으며 투자규모도 10억 달러를 초과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2000년대 초반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일 년 동안의 투자규모가 46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부터는 투자건수와 투자규모가 모두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6. 대만의 해외직접투자 유출 업종 구조(%)
Table 6. Industry Structure of the Outward FDI in China, Taiwan Province(%)

	1952-1980	1981-2000	2001-2011	1952-2011
Total	100.00	100.00	100.00	100.00
by Investment Case				
Mining and Quarrying	26.97	1.94	0.11	1.35
Manufacturing	69.74	53.89	41.61	48.16
Food Manufacturing	7.89	1.44	0.54	1.08
Textiles Mills	21.71	3.14	0.80	2.23
Wood and Bamboo Products Manufacturing	12.50	5.36	0.08	2.90
Chemical Material Manufacturing	19.74	6.59	0.36	3.74
Medical Goods Manufacturing	0.00	1.98	3.53	2.71
Electronic Parts and Components Manufacturing	0.00	10.41	14.91	12.46
Computers, Electronic and Optical Products Manufacturing	0.00	11.34	9.02	10.10
Wholesale and Retail Trade	0.00	14.40	17.96	15.95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0.00	10.55	12.13	11.19
Financial and Insurance	0.00	13.86	19.22	16.28
by Investment Amount				
Manufacturing	78.05	42.98	32.24	36.47
Food Manufacturing	8.33	1.45	0.31	0.76
Textiles Mills	48.41	6.85	1.10	3.40
Wood and Bamboo Products Manufacturing	10.44	4.03	0.03	1.59

Chemical Material Manufacturing	8.56	3.09	2.17	2.53
Electronic Parts and Components Manufacturing	0.00	5.83	14.34	11.02
Computers, Electronic and Optical Products Manufacturing	0.00	5.06	3.98	4.39
Wholesale and Retail Trade	0.00	8.88	7.09	7.78
Transportation and Storage	0.00	3.74	2.32	2.87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0.00	2.51	3.89	3.34
Financial and Insurance	0.00	36.27	51.28	45.38

자료: 대만경제부투자자심의위원회(ICMOEA)

4.4 대만의 중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대만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2011년 말 기준으로 대만의 전체 해외직접투자 건수의 75.05%와 투자금액의 61.72%가 중국에 투자되고 있다. 대만의 중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산업구조의 특징은 제조업 집중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의 노동력을 이용하고자 하기 때문이다(Zhang, Kevin H., 2005). 대만의 중국에 대한 제조업 투자는 대만의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투자건수와 투자금액의 비중이 각각 80%대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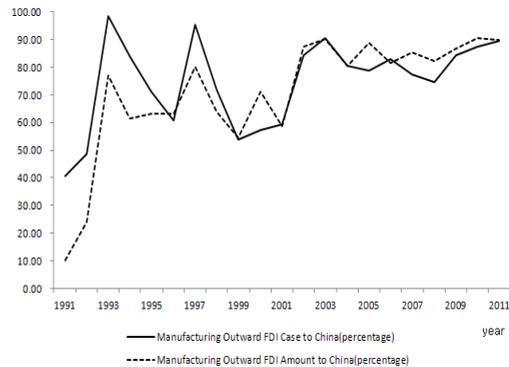


그림 5. 대만의 중국에 대한 제조업 투자 비중

Fig 5. Manufacturing Outward FDI Percentage to China by China, Taiwan Province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대만의 해외직접투자 유출과 유입 구조를 연도별 추세, 투자국가 구조, 업종 구조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은 대만의 해외직접투자 유입에서 화교자본의 역할을 구체적 자료를 통해 재조명하고 있으며, 해외직접투자 유출에서는 중국의 역할을 밝히고 있다. 대만은 아시아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국의 1980년대 이후 개혁개방과 함께 투자환경이 개선되면서 1990년대 이후부터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이 급증하고 있다. 본 논문의 분석에 의하면 2000년대 이후 화교자본의 대만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화교자본이 대만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중국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만의 해외직접투자 유입을 국가나 지역별로 보면 카리브해 영국령 지역을 제외한 미국, 네덜란드, 일본, 싱가포르, 홍콩, 영국 등이다. 이들 6개 국가와 지역은 전체 해외직접투자 유입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 유입의 업종 구조를 보면 제조업의 비중이 절반에 못 미치고 있으며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등 서비스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제조업 내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전자산업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부터 해외직접투자 유입이 급증함과 동시에 해외직접투자 유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유출이 대만의 해외직접투자를 선도하고 있다. 국가나 지역별로 보면 중국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미국과 중남미 지역으로 투자가 유출되고 있다. 그러나 그 비중은 중국과 비교할 때 훨씬 적다. 대만의 중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주로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다. 대만의 전체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약 80% 이상이 중국에 집중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만의 경제부투자심의회위원회 자료를

이용하여 대만의 해외직접투자의 유입과 유출 구조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비교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대만의 해외직접투자 연구에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 특징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대만의 해외직접투자 유입과 유출의 결정요인분석을 시도해 보면 더욱 의의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1] Balasubramanyam, V. N., M. Salisu, D.Sapsfor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Growth in EP and IS Countries", *Economic Journal*, 106(434), pp.92-105, 1996.
- [2] Basu, P., A. Guariglia, "Foreign Direct Investment, Inequality, and Growth", *Journal of Macroeconomics*, 29(4), pp.824-839, 2007.
- [3] Alfaro, L., A. Chanda, S. Kalemli-Ozean, S. Sayek, "Does Foreign Direct Investment Promote Growth? Exploring the Role of Financial Market on Linkages",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91(2), pp.242-256, 2010.
- [4] Ki-Chul, Park, "A Study on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Overseas Chinese Network", *The Journal of Chinese Studies*, 20, pp.479-504, 2001.
- [5] Sang-Wook, Kim, "Foreign Direct Investment Statistical Data Difference in China", *Journal of The Korea Knowledge Information Technology Society*, Vol.7, No.4, pp.13-20, 2012.
- [6] Zhang, Kevin H., "Why does so much FDI from Hong Kong and Taiwan go to Mainland China?", *China Economic Review*, 16, pp.293-307, 2005.
- [7] KIEP Beijing Office, "Taiwan Enterprises to China investment Current Issues", *Current Issues of the Chinese Economy*, 06-15, 2006.
- [8] Bank of Korea, "China and Taiwan ECFA Implications to the Taiwan Economy", *International Economy Information*, 2012-3, 2012.

- [9] Chen-Min Hsu, Wan-Chun Liu, "The Role of Taiwanese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China: Economic Integration or Hollowing-Out?", *Journal of the Korean Economy*, 5(2), pp.207-231, 2004.
- [10]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2.

저자소개



김상욱(Sang-Wook Kim)

1996년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 학사)
1998년 경북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경제학 석사)
2002년 南開大學校 大學院 경제학과
(경제학 박사)

2008년~현재 배재대학교 중국학부 중국통상학 교수
※ 관심분야: 중국지역경제, 중국 IT산업, 지역문화



김옥희(Yu-Ji Jin)

2002년 延邊大學師範學院
(법학 학사)
2007년 배재대학교 일본학과
(문학 석사)
2012년 배재대학교 동아시아학과
경제학 박사과정

2010년~현재 배재대학교 동아시아학과 박사과정
※ 관심분야: 중국경제, IT산업, 기업가치평가